

## 일상의 정치(politics of everyday life)를 통한 여성의 임파워먼트\*

김 경 희<sup>†</sup>

중앙대 사회학과

본 연구는 3년간 지역여성들이 수행해 온 지방자치단체 예산분석 운동의 사례를 통해 여성들의 집단적 임파워먼트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집단적 임파워먼트는 단순히 운동의 참여자들이 운동조직이 내건 운동의 목표나 조직의 이념을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운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성원으로서 여성의 역할과 참여의 의미라는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얻어진다. 분석사례에서 여성들의 집단적 임파워먼트는 지역여성들의 자원인면서, 이러한 자원을 배분하고 때로는 통제하기도 하는 권력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인 예산과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협상의 과정에서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이 때 임파워먼트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동력은 여성들이 해마다 향상시켜 온 정책분석 능력이라는 전문성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는 사회운동을 지나치게 사회구조적 측면에서만 설명하는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도이며, 실용적인 시사점은 일상의 정치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라는 이분법적인 담론의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주요어 : 일상의 정치, 임파워먼트, 집합적 정체성, 사회운동, 성인지 예산분석

---

\* 본 논문은 2002년 중앙대학교 교내 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sup>†</sup> 교신저자 : 김경희, (156-756) 서울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E-mail : khkim64@cau.ac.kr

권한강화, 세력화, 혹은 권능화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임파워먼트 개념은 원래 개인적인 자신감 획득, 혹은 권한이 강화되는 심리적 경험을 칭한다.<sup>1)</sup> 이 개념은 심리학, 교육학, 경영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적용되면서, 개인, 조직, 지역공동체가 자신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과 잠재력을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보편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학문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임파워먼트 개념은 현실정치에서 하나의 의제(agenda)로 제기되기도 한다. 주로 사회적인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인구층의 임파워먼트가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에서 촉구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정치적 임파워먼트는 좋은 예이다.

사회학에서는 권력개념이 오랫동안 논의되고 연구된 것에 비하면 임파워먼트의 개념은 분화된 연구주체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파워먼트의 개념을 가장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영역은 사회운동 연구 분야이다. 사회운동 연구에서 집단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분석은 집합적 정체성에 관한 논의와 연관되어 있다. 최근들어 사회운동 연구에서 집합적 정체성에 관한 논의가 관심을 끌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그간의 사회운동에 대한 설명이 지나치게 사회구조적 측면이 강조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구조적인 설명이 채울 수 없는 부분을 집합적 정체성, 연대감, 정치의식 등 사회심리학적 요소들을 포함하여 확장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Gamson, 1992; Larana et al., 1994; Mellucci, 1980; Snow and Benford, 1994).

본 연구는 운동의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집단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사회구조적 측면에 초점을 두거나, 아니면 운동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미시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둔 사회운동 연구의 한계를 보완해보려고 시도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지역여성들이 수행한 예산분석 운동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여성들의 집단적 임파워먼트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인 여성들의 집단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분석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를 심리적 성취감과 같은 운동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운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운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갈등과 협상을 통해 임파워먼트의 주요 자원인 집합적 정체성과 운동의 성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초점을 둘 것이다. 즉 본 연구는 임파워먼트가 특정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권력과 자원의 본질과 분배관계를 변화시키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 될 것이다. 여성의 임파워먼트에 관한 일부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듯이, 여성들의 집단적인 임파워먼트의 척도로는 자신감, 비판의식의 개발, 집합적 정체성, 의사결정과정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한 정책의 변화 등을 꼽을 수 있다(Young, 1993). 본 연구에서도 여성들의 임파워먼트를 이러한 척도를 가지고 질적인 분석을 할 것이다.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본 연구의 사례인 지역여성들의 예산분석운동에서 참가자들은 '여성'이라는 사회적 범주가 경제적, 정치적 권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당하고 있다는 점을 지방정부와 겪는 갈등과 협상 과정에서 깨닫게 된다. 따라서 예산분석운동의 참여자들은 지역여성들의 삶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점차 향상되는 정책 전문성을 가지고 지방정부와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1) 본 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라는 개념을 원어 그대로 본문에 사용하기로 한다.

둘째, 지역여성들의 임파워먼트 과정은 기존의 정치개념에 대한 대안적인 개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여성들의 예산분석 운동을 일상의 정치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본 연구의 분석사례인 예산분석 운동은 주로 주부들로 이루어진 여성단체의 회원들이다. 이들은 여성의 영역이라고 인식되어 왔던 사적영역의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지방정부)라는 틀 속에서 제기하고 재구성함으로써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에 대한 담론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사회의 성원으로서 여성의 역할과 참여의 의미를 높이고 있다. 이제까지 주요한 정책결정 과정이나 정책변화가 제도정치나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관습적인 인식과 다소 다른 현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가교 역할을 하는 여성들의 집합행위를 일상의 정치라는 대안적인 개념을 통해 설명할 것이다. 이는 여성들의 집단적인 임파워먼트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드러날 것이다.

다음에서는 여성들의 집단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사례분석의 배경이 되는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논의를 다루고,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보일 것이다.

### 사회운동의 사회심리학적 요소로서 집합적 정체성과 임파워먼트

사회운동 연구 분야에서 1970년대 이후 설명력을 가진 자원동원이론은 사회운동의 출현과 참여동기를 개인의 심리적 성향으로 설명하는 고전 사회운동이론에 반대하면서 사회운동은 집합행위를 가능하게 해주는 자원의 수준이 증가

할 때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자원동원이론은 전문 운동가들이나 제도적 재정지원, 운동조직들 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연결망들이 자원이 된다고 보았다(McAdam 1982; Morris 1984). 자원동원이론의 발전 과정에서 형성된 정치과정 모델은 사회운동의 등장과 전개, 그리고 그것의 사회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치적 기회구조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Jenkins and Perrow 1977; McAdam 1982; Tarrow 1983, 1989, 1994). 정치적 기회 구조의 공통적인 변수들은 정체의 개방성 혹은 폐쇄성, 정치적 연합의 안정성 혹은 불안정성, 엘리트 집단 내의 연합 혹은 시위에 대한 관용, 그리고 국가의 억압 정도 등이다. 많은 연구들이 어떻게 운동이 확산되고, 어떻게 집합행위가 새로운 연결망들을 형성하고, 기회구조를 포착하기도 하고 또 기회구조형성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러한 변수들을 가지고 설명해 왔다(Gamsons 1975; Jenkins and Perrow 1977; Katzenstein, 1987).

비록 정치적 기회구조와 운동조직이 집합행위에 대한 구조적인 측면을 설명해 주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문제와 부정의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확신하면서 집합행위에 참여하게 되는지의 의미화 과정이 설명되지 않고 있다. 사실 자원동원이론과 정치적 기회구조 이론은 사회운동의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 의미, 불만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집합적 합의를 이루는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이 집합행위를 하기 위해서 자원을 확보하는가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한계를 메우기 위하여 집합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사회운동의 발생, 궤적, 결과 등의 차원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집합적 정체성을 탐구할 수 있는 차원의 다양성 만큼, 그 정의(definition)도 운동에 참여하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범주, 참여자들의 상황에 대한

공유의식, 모든 행위에 대한 표현적이고 문화적인 특성, 참여를 동기짓는 정서적 연대, 운동 내부의 연대감의 경험 등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Polleta and Jasper, 2001).

집합적 정체성에 관한 연구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존의 사회구조적 설명들과 구별되며, 임파워먼트 연구에 도움을 주는 몇 가지의 논점들이 있다(Polleta and Jasper, 2001). 하나는 집합행동의 동기가 반드시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과 인센티브가 없더라도 사람들은 집합적 정체성의 형성을 통해 즐거움과 책임을 느끼면서 운동을 한다는 점이다. 즉 집합적 정체성은 물질적 이익에 대한 대안이 되며 집단적인 임파워먼트의 주요한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논점은 집합적 정체성은 단순히 문화적이거나 심리적인 측면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집합적 정체성 형성을 위해 운동의 리더나 조직은 의식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집합적 정체성이 조직, 네트워크, 운동의 다양한 레퍼토리 등 운동의 자원을 선택하는 과정과 연관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주류 이론들은 사회운동의 결과에 대한 논의 속에서 정체성을 제도적이라기 보다는 문화적 결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러나 집합적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은 집합적 정체성 그 자체가 운동의 목적이 되기도 하며, 운동의 결과로 집단의 자부심을 발전되기도 하며, 새롭게 형성된 정체성은 제도적인 정치의 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Polleta and Jasper, 2001).

이상에서 논의한 집합적 정체성에 관한 논점들은 본 연구에서 임파워먼트 과정 분석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사례분석 과정에 적용될 것이다.

## 대안적 정치개념으로서 일상의 정치(everyday life politics)와 임파워먼트

최근들어 여성들의 정치적 임파워먼트가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여기에서 정치적 임파워먼트는 정치, 행정분야의 여성진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제도정치에서 여성들의 임파워먼트가 아닌 여성 대중들의 삶의 경험에 근거한 여성들의 정치형태에 주목한다.

정치는 특정 성을 명시하지 않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수행되는 남성들의 활동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오랫동안 학문 공동체에서 정치는 남성들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비록 정치 영역에서 여성들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학자들조차도 정당이나 관료제 등 무척 협소한 영역에만 국한하여 관습적 의미의 정치 개념의 여성화를 시도하였다. 그것은 의회와 행정직에서의 여성 후보와 남녀 격차에 대한 관심이었다. 비록 의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가치가 중요하지만 정치를 공식적인 정치기구에서의 활동으로만 연결시키는 경향은 여성들의 광범위한 정치활동을 드러내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기존의 공사구분에 근거한 정치개념으로는 여성들의 영역이라고 인식되었던 사적영역의 저변에서 서서히 형성되고 있는 여성들의 활동을 포착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의 잠재성을 성장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Christiansen-Ruffman, 1995).

여성들은 다양한 동기에서 정치활동에 늘 참여해 왔다. 여성들은 직접적으로 경제적 생존과 가족, 그리고 자녀들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화된 운동의 참가자로서, 지도자로서 참여해 왔다. 여성들은 지역과 공동체 수준에서 복지, 주거, 고용, 식생활과 관련된 일상생활의 이슈를 중심으로 참여해 왔다. 또한 민족주의

적, 인종적 이슈에 초점을 둔 사회운동에 참여해 왔다. 그리고 여성들은 평화, 환경, 공공교육, 정신건강, 교도소 개혁과 같은 인본주의적이거나 보살핌과 관련된 운동에도 참여해 왔다. 여성들은 역사적으로 민족적이고 지구적인 차원에서 가정 내의 역할의 확장으로서 자신들의 집합행동을 정당화시켜 왔다(West and Blumberg, 1990). 확장되고 재규정된 의미에서 정치적인 것은 단지 정부의 제도화된 영역만이 아니라 개량운동, 지역공동체 운동, 자원활동 등을 포함한 영역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이처럼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들의 집합적인 임파워먼트를 위한 활동을 위한 개념으로 일상의 정치(politics of everyday life)를 들 수 있다. 페미니즘의 성장과 함께 제기된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다(personal is political)”라는 슬로건은 정치는 권력이 행사되는 모든 곳에서 존재한다는 의미를 새롭게 부각시켰다. 이 슬로건은 정치와 일상생활, 그리고 개인의 일상의 욕구와 사회변화를 직접 연결시키면서 여성운동의 의제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낙태, 재생산권, 가정폭력, 성희롱, 보육, 가사노동과 같은 개인 여성의 사적인 문제들은 국가적인 정치의제들과 갈등 및 협상의 과정에서 경합하게 되었다. 이처럼 일상의 정치의 근거가 되는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라는 주장은 공사영역의 구분과 경계를 허물며 선거, 후보, 로비와 같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제한했던 이데올로기에 도전하는 것이다.

일상의 정치문화는 여성들의 따뜻함과 올바름에 근거한 사회에 대한 지향성, 도덕성, 가치, 믿음의 총체라고 정의된다(Bunch, 1987). 이러한 정치문화는 생물학적이거나 근본주의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물질적인 토대(material base)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아동양육, 인간에 대한 보살핌, 분배적인 정의와 관련

된 여성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다. 역사적인 경험 속에서 이러한 정치문화가 실현되고 있는 형태는 비공식적이고 인간적이며, 소규모이고 공동체적인 것이 특징이다. 여성들이 행하는 일상의 정치는 지역정치의 성격을 띄기도 하는데, 경계에서 있는 페미니즘(feminism on the border)으로 묘사되기도 한다(Saldívar, 1991). 이것은 지역성, 계급, 성에 의해서 구성되는 물질적인 조건 안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증진시키는 노력을 말하며, 자신들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규정하지 않더라도, 공동체를 위한 일에 여성이 중심이 되어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경계의 공간을 형성한다는 의미이다. 즉 여성들의 전통적인 성역할은 여성들로 하여금 공사영역, 지역공동체와 일터라는 이항대립적인 도식에 도전하도록 만들었다. 여성들은 시장에서, 병원에서,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 등에서 협상과 투쟁을 하면서 공적영역의 국가와 기관들이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지역주민과 가족들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 형성된 연결망을 정치적 연결망으로 활용한다(Christiansen-Ruffman, 1995).

이러한 의미에서 일상의 정치는 프레이저(Nancy Fraser)가 명명했듯이, ‘사회적인 것’의 발전 과정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사회적인 것(the social)’은 사적인 문제라고 여겨졌던 이슈들이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드러나고 쟁점화 되는 담화의 영역인 것이다(Frazer 1994).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사례인 지역 여성들이 수행한 예산과 정책분석 운동은 ‘사회적인 것’이라는 일상의 정치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 연구대상과 방법

### 연구대상

본 연구의 분석사례는 한국여성민우회가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과 예산의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라는 주제로 벌여 온 예산분석 운동이다.

이 예산분석 운동은 한국여성민우회 본부가 기획하여 2001년에는 6개의 한국여성민우회의 지역단체들이 참여하였고, 2002년에 8개 단체, 2003년에는 10개의 지역단체가 참여하였다.

한국여성민우회 본부는 이 운동을 대중운동의 확산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시작하였다. 1987년에 창립된 한국여성민우회는 9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대중여성운동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여 점차 대중여성운동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졌다. 80년대 후반부터 민우회의 생활자치운동은 주부운동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여성문제와 교육문제에 관심이 있는 진취적인 주부들의 소모임을 구성하여 주부운동을 전개하였다. 소모임을 민우회의 조직활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민우여성학교를 개설하여 민우회 창립 활동가들이 교육활동을 통하여 주부활동가를 배출시켰다.

예산분석 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은 대부분 주부활동가들이며 평균 한 지역에서 5-6명 정도가 참여하였다.

해마다 거의 8-10개월간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예산분석 교육을 위한 워크샵, 해당 지역의 예산분석 작업, 토론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결과를 공유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예산분석 운동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예산의 지출이 국가의 여성정책 계획에 부합하는지,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

를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해마다 운동의 내용과 방식이 점차 정교해졌다는 면에서 발전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예산분석 운동의 주요 내용을 이루는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정책은 지역여성들의 자원이기도 하면서 이러한 자원을 배분하고 때로는 통제하기도 하는 권력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가 의도하는 임파워먼트 분석에 중요한 내용이 된다.

###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는 여성들이 일상의 정치를 통하여 획득하게 되는 집단적 임파워먼트 과정을 사회운동분석의 사회심리학적 요소인 집합적 정체성형성, 갈등과 협상의 과정, 그리고 임파워먼트의 근거를 형성하는 전문성 향상과 지방정부의 변화에 대한 분석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 세가지 과정은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하기는 하였으나 서로 엮물려 있는 과정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필자가 3년간 진행된 예산분석운동에 예산분석과 정책기술을 교육하고 실제 분석 과정에 도움을 주는 전문가로 결합한 직접 참여의 경험과 예산분석 운동에 참여하였던 회원들이 구성한 소모임인 생강방 활동에 대한 사례분석이다. 주로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질적인 자료로서 필자가 맡았던 역할인 전문가로서 워크샵 교육과정에 대한 기록, 토론회 참여 및 토론회 자료, 개인 여성 활동가들과의 비공식적 면담 기록 내용이다. 그리고 예산분석 작업에 참여한 지역여성들이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에 마련한 소모임 활동의 글들에 대한 내용분석이 주를 이룬다. 본 연구의 분석사례인 예산분석운동은 여

러 지역에서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의 운동 과정에 대한 공유를 위하여 온라인 상에 소모임방을 마련하여 의견을 공유하였다. 소모임방은 예산분석 운동 참여자들만이 접근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 올라온 글들은 공식적인 문건 뿐 아니라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글들도 격의 없이 개진되었다. 따라서 이 글들은 운동 참여자들에게 대한 심층면접에서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담고 있다고 판단된다. 지난 3년간 소모임 방에서 주고 받았던 글들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여성민우회 본부에서는 생활자치신문<sup>2)</sup>과 뉴스레터를 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 예산분석 운동을 통한 여성의 임파워먼트 분석

불모지에서의 전략적 선택: 성인지 예산(gender-sensitive budget)과 생강모임

2001년에 예산분석 운동을 시작하면서 내건 슬로건은 “예산에도 성(gender)이 있다”였다. 이 슬로건은 일견 중립적으로 보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여성들의 전통적인 성역할을 고착시키거나 미온적인 복지수혜의 대상으로 여성을 간주하는 지방정부의 여성정책관에 대한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2001년의 프로젝트에 이른바 성인지적(gender-sensitive) 예산분석 운동으로 이름 붙여졌다. 성인지적 예산분석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권고하고 있는 여성정책의 하나이다. 즉 정부의 예산 지출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기구에서는 성인지 예산분석 도구와 방법론을 개발해왔고 현재에도 개발 중에 있다. 사실 이것은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정책이다. 몇몇 국가에서 이 정책이 시범적으로 진행되었는데, 호주를 제외하고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운동의 형태로 수행된 특징을 보여준다.

한국여성민우회 본부는 성인지적 예산분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획하였으나, 사실은 방법론이나 지역조직들의 역량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출발하였다. 거의 성인지적 예산분석을 불모의 상태에서 시작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한계를 넘을 수 있었던 것은 한국사회에서 생소하고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성인지예산이라는 개념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생강모임’이라는 조직을 만드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지역여성들의 예산분석 운동은 2001년에 출발하면서 이 운동에 참여하는 6개의 지역에서는 이른바 “생강”모임을 결성하게 되었다. 생강은 생활정치를 건강하게 하는 여성들의 모임의 약자이기도 하면서 모든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감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생강을 연상하는 의미로 이름 붙여졌다. 생강모임 결성식에서 발표된 다음의 글을 거의 불모지에서 출발하는 예산분석 운동을 끌어가기 위한 의식적인 다짐을 보여준다.

2) 자료의 출처로 생활자치신문이라고 표기한 본문의 내용은 각 지역에서 생활자치신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온라인 소모임에 올라온 글에서 인용하였다. 이글들을 종합하여 한국여성민우회 본부에서는 ‘생강뉴스’라는 타블로이드판 신문을 제작하였다.

“지역은 우리의 생활 중심지이며, 참여와 자치를 실현하는 뿌리입니다. 우리의 활동은 바로 지역의 생활자로서 우리의 일상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

을 만나고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정치화’ 해낼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정치는 우리 삶의 조건을 스스로 바뀌기는 생활의 정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지역여성정책과 예산을 꼼꼼히 분석할 것입니다. 여성정책이 여성들의 현실적 요구에 충실하게 계획되고 집행되는지를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대중여성운동과 지역여성운동의 발전에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sup>3)</sup>

예산분석운동을 제대로 수행하고 싶다는 의식적인 다짐은 별도로 하고, 사실 예산분석 운동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전문적인 정책 지식과 기술이었다. 2001년 출발할 당시 지역여성의 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예산을 분석해내자는 취지에는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공감하였지만, 이 큰일을 어떻게 해내야 할지 막막할 수 밖에 없었다. 우선 예산분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할 것이고 예산을 통해서 여성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만드는 것은 만만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한국여성민우회, 2001a). 다음의 글은 처음 시도해보는 예산분석을 대하는 막막함을 잘 표현해 준다.

“처음엔 예산분석을 왜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상근활동가이든 회원이든 준비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무지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이 앞섰었죠”(생강뉴스, p. 7).

2001년에 예산분석운동을 시작하면서 한국여성민우회 본부와 6개 지역의 여성들은 전문가와 결합한 몇 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예산분석의 방

3) 한국여성민우회(2001). ‘생활정치를 건강하게 하는 여성들의 모임’ 결성식의 다짐의 글

법과 정책분석의 기준들을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성관련 예산지출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예산보는 방법 등을 공부하고, 지역여성정책과 예산이 쓰인 결과가 과연 여성들의 불평등한 삶을 개선하고 여성들의 힘을 길러주고 있는지를 검토해 갔다. 열띤 토론과 지역의 상황을 논의에 붙이면서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여러사업들을 살펴보았다. 과연 가정에서 여성들이 수행하는 아내, 어머니, 보살핌을 주로 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역할들을 변화시키고 사회 경제적으로 평등한 온전한 시민으로 여성들을 상정하고 있는 것인지 반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생강모임은 함께 공부하면서 예산분석을 위한 기준과 방법들을 마련하였다. 2001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예산에서 여성정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예산이 어떤 일에 쓰이고 있는지,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에 비추어 예산지출은 적합한지를 분석하기로 하였다. 이는 여성정책 예산이 그 지역의 여성들의 요구와 필요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사업들이 과연 여성들의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개선하고 앞으로 양성평등을 구현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것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2002년에는 2001년 작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여성정책담당부서 이외에 다른 부서에도 여성관련 예산들이 산재되어 있으며, 여성정책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지만 여성들이 정책대상이 되는 사업들이 많다는 점을 반영시켰다. 따라서 2002년에는 여성정책담당부서에 할당된 예산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여성들을 위해 쓰이고 있는 예산까지도 뽑아 여성정책 예산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취했다. 2003년에는 ‘지자체 성주류화의 제도적

기반분석'이라는 주제로 제2차 여성발전기본 계획을 근거로 하여 해당 지역의 여성발전기본법상의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여성발전기본조례' 및 제반 여성관련조례의 내용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의 수준과 공무원 젠더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의 목표와 달성정도 그리고 여성주간행사의 내용 등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해마다 예산분석을 위한 기준과 방법들이 조금씩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점차 발전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예산분석 운동의 참여자들은 부족하지만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 갈등과 협상과정에서 얻어지는 임파워먼트

예산분석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결산 보고서와 내부 사업계획 및 보고서, 기타 정책자료들이었다. 예산분석 운동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성들의 갈등과 협상은 바로 자료수집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공공기관의 자료를 구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예산분석 운동을 시작한 2001년 첫해에는 평상시 여성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자료수집에 매우 비협조적이었다. 결국 어떤 지부에서는 시민의 권리인 정보공개 요구를 하여 자료를 구하기도 했고 자료 청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료를 얻을 수 없었던 곳도 있었다(김경희, 2003).

공무원들은 시민사회단체에 자료를 제공할 경우 겪게 될 비판을 우려하였다. 90년대 이후에 활성화된 지역운동은 소위 관변단체들과 유지해 온 것과 같은 좋은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여성운동 단체들은 갈등과 협상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선은 공무원들이 여성단체가 비전문가 집단이라는 선입견에서 출발한다. 이 운동에 참여했던 한 지역에서는 자료수집을 요구하는 단체에게 "여성단체가 정책분석과 같은 전문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느냐"며 심한 편견을 드러내기도 했다(생활자치신문, 1시; 한국여성민우회, 2003a). 2001년 C시의 토론회에서 한 공무원의 말은 여성단체들의 예산분석운동에 대한 심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보도블럭을 하나 깔고 바꾸는 정책 사업도 다 여성정책이지 남성들을 위한 정책입니까?. 그리고, 여성들을 주요부서에 배치하면 야근 못한다고 울고불고 바꿔달라며 통사정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주요부서에 배치를 합니까?“(생활자치신문, 1시)

자료를 얻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과 지역여성, 특히 여성운동단체들과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매우 불균등한 권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깨닫게 만들었다. 다음의 글은 이를 잘 보여준다.

“...어색한 사이, S시 공무원! 침으로 얼굴을 맞댄 S시 공무원들. 많기도 한 부서들, 공무원들, 청사도 관련기관도 많은데다 뽀뽀이 흩어져 있어서 자료하나 받으러 갈래도 어딘지 꼭 위치 확인해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흥길동이 되어야 했다. 많은 사람들 땀에 주눅 들고 고자세인 공무원 땀에 또 한번 주눅 들고.

토요일에 아침은 물론이고 점심도 못 먹고 공무원교육원에서 자료 일일이 들춰가며 메

모하다가 극심한 교통체증을 뚫고 또 정신 없이 뛰어갔는데 자료 없어서 못 준다는 말에 땀 뻘뻘 흘려가며 책 한권을 다 복사하는데 담당공무원이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꺼내며 말을 건네더니 자기만 따라 마시고 다시 냉장고 문을 닫았을 때 그 기분. 하도 열 받아서 그전까지 신경도 안 쓰던 사람이 이것저것 물어 보길래 성의 없는 대답으로 쏘아 부치고는, 퇴근시간이 가까운 시간이라 피해를 줄까봐 흘러내리는 땀도 제대로 못 닦으며 서두르다가 집에 가려고 서두르지도 않는데 그럴 필요 뭐있나 싶어서 일부러 천천히 하고 나왔다. 내년 되면 민우회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알게 되서 태도가 좀 바뀔까..”(생활자치신문, S 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여성들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다음의 사례들은 지방정부의 공무원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했음을 보여준다.

“2001년 W시 여성정책과 예산분석 토론회를 진행할 때에는 특정 사업에 대한 비판을 담당공무원에 대한 비난으로 여기거나, 시민단체로서의 비판자체를 월권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매년 분석과 토론회를 진행해 갈수록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을 제안했을 때 긍정적으로 여기거나, 담당공무원들도 인식치 못했던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했을 때 작업의 수고로움을 고마워 하였다. 또한 의회방청을 진행하면서 여성정책과의 의안을 심의할 때 보통 10여분을 넘기지 않는게 관례였으나 1시간 이상을 심의하는 신중함을 보여주었고, 문제 제기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폐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예산안 편성시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되지 않고,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비공개 형태의 장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또한 성인지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비현실적이라고 여기거나 구체적화 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하다.”(생활자치신문, W시)

“몇 번의 모임을 통해 평가서와 제안서가 완성되고 시 집행부와 간담회를 하는 날이면 가슴이 두근두근한다. 분석보고에 이은 집행부 의견, 시의원 발언, 관련부서 공무원의견, 타 여성단체의견 들... 간담회는 이 엄청난(?) 사업의 분석결과만으로도 민우회 회원들은 힘을 얻는다. 집행부가 ‘열심히 제안을 받아들여 반영시키겠다’는 그 말은 그동안 힘든 작업의 고단함도 잊게 한다. 내년에는 더욱 열심히 분석작업에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회원들은 다짐한다.”(생활자치신문, I 시)

“분석의 자료를 구함에 있어서도 이제는 구청과 파트너십이 형성되어 어렵지않게 자료를 구할 수 있었고 우리가 배출한 기초의원을 활용하여 보다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생활자치신문, Y 구)

결국 첫해에는 갈등의 양상을 보이던 예산분석의 자료수집과 환류의 과정에서 여성들은 공무원들과 협상과 수용을 경험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임파워먼트는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여성정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 정책역량이 근거가 됨을 알 수 있다. 지역의 여성단체가 해마다 축적해가는 정책역량과 정책과정

에 끼치는 영향력은 공무원들의 자료수집에 대한 거부나 비협조의 근거를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이다(한국여성민우회, 2003a). 지역의 여성단체들에서는 2003년의 경우에도 여성단체의 전문성에 대한 불신과 공무원들의 소극성, 갱신되지 않은 자료 등과 같은 문제들이 나타났지만, 대체로 담당공무원들이 이전 해에 비하여 호의적이고 협조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의 과정이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관계형성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한국여성민우회, 2003a).

#### 임파워먼트의 주요 자원인 정책 전문성의 향상

본 연구에서 주요한 분석 결과 중의 하나는 자료수집에서부터 겪게 되는 공무원들과의 갈등을 협상으로 변화시키는 주요한 자원은 여성들이 해마다 향상시켜 온 정책 전문성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성은 운동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감과 보람을 느끼게 하며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이다.

“어렵사리 구한 예결산서는 전국 전화번호부보다 더 두꺼우며 2-3개씩 모아놓고 분석해야 할 때는 눈 앞의 바위같았다”며 두려움에서 출발하였던 여성들은 3년이 경과하는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과정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행위자로 변화하게 되었다. 한국여성민우회의 예산분석 운동은 이제까지 지역여성운동이 정책 옹호(advocacy) 활동에서 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성을 갖춘 정책행위자로서 여성들의 역할을 확장시켰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평상시 살림하면서 많아야 백만원 아니면 천만원 단위는 만져봤어도 억, 십억, 조까지 이르는 예산액을 계산해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모 지부의 한 회원은 “내가 왜 이 삼복더위에 예산분석을 하겠다고 했는지 후회가 막심하다”면서 스스로 머리를 짚었다고 한다. 그러나 손이 얼얼해지도록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지역살림을 헤아리고 지방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정책대화와 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은 임파워먼트를 경험하고 있다(한국여성민우회, 2001a).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정책 대화를 하기 위해서 여성들은 그들과 동일한 정책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3년 동안 예산분석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여성정책기본계획,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계 및 구성비율, 재정자립도, 일반회계, 장, 관별 예산액 및 구성비율, 불용액, 전용액, 이월액의 구성 및 비율, 경상비, 사업비 등의 용어를 이해하고 익숙해졌으며, 분석방법에 대한 정책기술들을 향상시켜 갔다.

여성들의 정책 전문성의 향상은 예산분석의 결과를 통하여 더욱 잘 드러난다. 2001년에는 각 지역의 여성정책예산을 분석한 결과, 여성정책부서의 전체 예산 대비 비율은 턱없이 낮으며, 여성정책 예산의 대부분이 보육 지원이나 요보호 여성복지 등 보호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한 여성정책 담당부서에 배정된 예산 중에는 행정적인 편의를 위하여 배정된 여성 관련 예산이라고 보기 힘든 항목들이 있음이 밝혀졌다(한국여성민우회, 2001). 그리고 성인지적 관점이라는 새로운 정책관점의 적용을 통해 아동복지, 알뜰시장, 생활개선, 농촌일손돕기 등의 사업이 기존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여성정책담당부서에 배정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냈다. 2002년에는 여성정책담당부서의 예산 중에서 여성정책이라고 볼 수 없는 사업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제외하고 여성관련 정책에 할당된 예산이 더욱 줄어들게 된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러한 정책 전문성의 향상은 생강모임 회원들의 자신감과 보람을 증가시켜주는 주요한 자원이 되고 있음을 다음의 글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두꺼운 예산서를 몇 번씩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사업이 끝날 때쯤이면 예산서가 너털너털 해진다. 온갖 자료 요청에 있는 자료, 없는 자료 몽땅 뒤집어서 다시 보고 이것저것 확인하고 분석틀에 맞춰 평가서를 쓰다보면 여성정책규모에 화가 나기도 하고 전년에 비해 발전한 사실을 발견하면 무척이나 뿌듯하다. 마지막 몇 날은 어김없이 밤을 지새게 되고 힘든 작업이지만 이를 통해 1시의 여성정책이 발전한다고 생각하면 감회가 남다르다.”(생활자치신문, 1시)

“W시 여성민우회는 지난 2001년부터 올 2003년까지 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W시 여성정책과 예산분석 작업을 진행해 왔다. 초창기 “성인지적”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하고, “여성정책”을 어떻게 개념 지을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고민과 비판의 무풍지대로 있어온 여성정책 담당 부서의 정책과 예산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이 보여 주었던 당혹감과 항변 속에서 어렵게 장님 문고리 잡듯 사업을 진행해야 했다. 이제 여성정책 전문가로 자리잡은 우리단체의 정책역량과 디디지만 분석자료와 대안을 바탕으로 정책으로 반영하고 수렴해가는 자치단체의 모습에서 보람을 느끼게 된다.”(생활자치신문, W시)

“처음 예산과 정책을 보거나 분석하는 게 아

득하기만 했는데 지금은 예산서만 봐도 정책이 보입니다. 올해의 경우 2월3일 처음 올해 활동계획을 세우고 매기 양천구의회에 방청을 하였으며, 함께 하는 시민행동이나 참여연대등의 납세자대회나 바람직한 지방분권화, 주민참여 등에 관한 논의를 함께 했습니다. 또한 3차례의 여성민우회본부 워킹을 통하여 성인지적 예산과 정책에 대한 분석의 방향과 감각을 다지고 타지역의 사례들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생활자치신문, Y구)

예산분석 운동 과정에서 보여주는 여성들의 정책 전문성의 향상과 자신감의 획득은 임파워먼트의 주요한 자원이며, 자신들의 삶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의 변화라는 성과를 통하여 집단적인 임파워먼트를 경험하게 된다.

#### 집단적 임파워먼트: 집합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의 형성과 정책의 변화

예산분석 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의 집합적 정체성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지역과 여성이라는 이중의 엇물림 속에서 만들어진다. 즉 한국사회에서 지역은 수도권 중심의 중앙집권적 발전과정에서 대체로 주변적 위치에 있었으며, 여성은 사회발전 과정에서 배제와 차별을 경험한 존재라는 점에서 예산분석 운동 주체들의 문제제기가 시작되었다(김경희, 2001a). 지역여성들이 임파워먼트되지 않는다면 이중의 소외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예산분석 운동을 시작할 때 공유된 의식이었다. 개별 지역에서 수행된 예산분석 과정에서 겪었던 갈등과 협상의 경험 속에서 생강모임 회원들은 ‘여성’이라는 사회적 범주가 정책 영역에서 매우 주변적인 위치에 있음을 깨닫게 한다는 다음의 글

을 통해 잘 알 수 있다(생활자치신문).

“구 단위의 여성정책(그 단어를 쓰는게 맞는지 의아할 정도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길이 멀었음을 느꼈다. 여성 전반을 위한 사업보다는 저소득과 요보호 여성만을 위한 복지사업이 중심이고 그나마 그것도 지자체 자체로의 사업이 아닌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임을 보면서 생활에 가장 밀접한 단위인 구단위에서 여성발전이 이루어지고 여성의 사회참여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단위의 여성을 위한 연구, 조사사업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별 생각없이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는 심정으로 미디어 모임에 갔다가 고정 게스트가 되었다. 사람 사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성격이라 아직도 서먹한 기분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안가면 서운하고 화요일 아침이면 모임에 늦을새라 마음이 바빠진다. J시 예산을 앞에 놓고 토론을 하면서 많은걸 배웠다. 또한 그만큼 화나고 슬프기도 했다. 내가 태어나서 자란 J시가 이토록 여성정책을 무시하는 곳일 줄이야... 어떡해야 이 남성들만의 세계를, 그 높다란 담장을 허물 수 있을 것인지 나에게 커다란 숙제로 남는다.”

이러한 공유된 속에서 지역여성들은 여성들을 차별하는 구조적인 힘을 인식하고, 이것이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한정된 자원과 권력밖에 부여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3년이 경과하면서 지역여성들의 예산분석 운동은 해당 지역에서 상당한 정책변화를 이끌었다. 이러한 변화 중에는 불합리한 여성정책 전

담부서의 재편성과 신설이 특징이다.

W시의 경우에는 1999년에 여성정책과를 신설하여 여성정책담당부서는 복지환경국 산하에 두어졌고, 담당업무는 여성정책, 여성복지, 여성교육, 생활개선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1년 예산분석 결과를 근거로 W시의 민우회는 생활개선관련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관련 업무와 중복되고,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대부분이 농가소득 창출과 관련된 업무가 대부분이므로 여성정책과 업무로 적절치 않음을 지적하였다(한국여성민우회, 2001b). 또한 보육지원업무의 경우 사회복지과의 담당 업무였으나, 보육정책이 요보호 아동중심의 아동복지에서 벗어나, 가정과 직장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진정한 보육정책이 되려면 여성정책담당부서로의 업무이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토론회를 통해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W시는 2003년 부서업무개편을 통해 생활개선 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보육지원업무는 여성정책과로 이관되었다. Y구의 경우에는 예산분석 결과가 반영되어 전국 최초로 기초자치단체에 여성전담부서를 신설했으며, 여성발전기금을 점차적으로 조성하여 12억 조성하였고, 2006년 15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생강뉴스, p. 2).

다음의 글에서 나타나듯이 3년동안 예산분석 운동 과정에서 여성들이 일상생활을 정치화하는 주요한 정책 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점이 집단적 임파워먼트의 핵심 내용일 것이다.

“2003년에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파행 집행 제지, 서울시 교육청의 위탁급식 지침을 허물고 최초의 월촌 중학교 직영급식 실시,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구성시 구의회의 주민의 무시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등 이제는 여

성예산 2억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 속의 행정 영역에 개입하여 주민의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우리는 지역여성으로서 아이들의 통학로, 과밀학급 등 교육환경문제, 식생활과 급식문제, 소각장문제,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 놀이터의 개선, 기생충 유충에 관한 행정관청의 지도감독체계 및 관리의 적극적 조치유도, 안양천변의 중장비 주차장과 승용차 주차장의 폐쇄, 환경문제 등 기억과 손가락이 모자라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는 여성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아는 지역의 살아있는 요구들을 정책 속에서 해결한 결과입니다. 더구나 현재 특정정당에 의하여 행정과 의회가 편중된 상황에서 견제기능을 잃은 지방자치행정의 영역에서 시위나 투쟁없이 지방자치단체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여성시민단체로서의 주민참여와 자치행정의 안내자 역할을 아무지게 했다고 자부합니다.”(생활자치신문, W시)

3년간에 걸친 지역여성들의 예산분석운동의 결과를 지방정부와의 간담회, 토론회, 정책건의 등의 형태로 정책과정에 환류되는 과정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 여성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본 논문의 서두에서 논의하고 있는 일상의 정치가 가지는 잠재력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 결론: 대안적 정치와 임파워먼트 연구의 심화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사회운동 연구의 사회구조적인 설명방식에 대한 보완으로 집합적 정체성과 임파워먼트라는 사회심리학적 설명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여성들의 임파워먼트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활동을 포괄할 수 있는 일상의 정치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대안적 정치개념의 도입은 기존의 정치개념과 집합행위에 대한 논의들이 성중립적이라고 간주되지만 사실은 여성들의 경험과 임파워먼트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는데 한계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하나의 사례분석이므로 다양한 일상의 정치와 임파워먼트에 대한 비교의 관점을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인 경험 연구의 축적은 여성들의 일상의 정치가 갖는 잠재성을 발굴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운동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첨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역을 근거로 여성 대중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 집합적인 활동을 관습적인 의미의 정치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일상의 정치라고 명명하기는 했지만, 이 개념에 대한 정교화 작업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그 이유는 아직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여성들의 다양한 문화와 활동에 대한 명명작업이 필요하며, 이 활동에 참여하는 개개인 여성들의 개인적, 집합적 정체성 형성에 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연구는 또한 사회운동과 사회정책 영역에서 실천적인 시사점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도 일상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90년대 이후 나타나는 여성운동의 주요한 경향 중의 하나이다. 일상의 정치는 바로 여성들의 삶의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기에 대중적일 수 있으며, 그 속도가 더디더라도 지속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정책영역에서도 대안적인 정치를 만들어갈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김경희 (2001). 지역여성정책과 예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하여, 한국여성민우회 교육자료
- 김경희 (2003). 성인지적 예산도입을 위한 시론적 연구, 한국여성학회지: 한국여성학, 19(1), 1-37
- 유필무, 김호기 편 (1995).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 이미경 외 (1998). 한국여성단체연합 10년사, 동덕여자대학교 출판부
- 한국여성단체연합. 정기총회 (1990-2001)
-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여성 (6호 88.12-18호 95.4)
- 한국여성민우회 (1997). 한국여성민우회 87 Women Link 97.
- 한국여성민우회 (2001a), 함께가는 여성, 겨울.
- 한국여성민우회 (2001b), 예산에도 성이 있다, 지역여성정책과 예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한국여성민우회 (2003a). 성평등의 눈으로 본 지자체 성주류화, 지역여성정책과 예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한국여성민우회 (2003b) 생강뉴스 제2호.
- Alvarez, Sonia E. (1990). *Engendering Democracy in Brazil: Women's Movements in Transition to Polit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rneil, Barbara (1999). *Politics and Feminism*, Blackwell Publisher.
- Bookman, Ann and Sandra Morgen Eds. (1988). *Women and the Politics of Empowerment*. Temple University Press.
- Bunch, Charlotte (1987). *Passionate Politics: Feminist Theory in Ac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 Christiansen-Ruffman (1995). Women's Conceptions of the Political: Three Canadian Women's Organizations. In Ferree and Martin Eds., *Feminist Organizations: Harvest of the New Women's Movement*. Temple University Press.
- Clemens, Elizabeth (1996). Organizational Form as Frame: Collective Identity and Political Strategy in the American Labor Movement, 1880-1920.
- McAdam, Doug, John McCarthy, Mayer Zald. Eds.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Political Opportunities, Mobilizing Structures, and Cultural Framings*. Cambridge.
- Cohen, Jean L. (1985), Strategy or Identity: New Theoretical Paradigms and Contemporary Social Movements. *Social Research*, 52(4), 663-716.
- Frazer, Nancy (1994). Gender Equity and Welfare State: Postindustrial Thought Experiment. In S. Benhabib ed., *Democracy and Difference: Contesting the Boundaries of the Political*.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amson, William A. (1992), The Social Psychology of Collective Action. In Aldon D. Morris and Carol McClurg Mueller Eds., *Fronti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Yale University Press.
- Harvey, David (1994). *Urban Experience*. Oxford: Blackwell.
- Jenkins, J. Craig (1983). Resource Mobilization Theory and the Study of Social Movements. *Annual Review of Sociology* 9: 527-53.
- Jenkins, J. Craig and Charles P. (1977). Insurgency of the Powerless: Farm Worker Movements (1946-1972).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 249-68.
- Katzenstein, Mary Fainsod and Carol McClurg Mueller (1987). *The Women's Movements of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Europe: Consciousness, Political Opportunity, and Public Policy*. Temple University

- Press.
- Klandermans, Bert (1984). Mobilization and Participation: Social-Psychological expansions of Resource Mobilization Theor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9: 583-600.
- McAdam, Doug (1982). *Political Process and the Development of Black Insurgency, 1930-197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cAdam, Doug (1986). Recruitment to High-Risk Activism: The Case of Freedom Summe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 64-90.
- McAdam, Doug, John McCarthy, Mayer Zald. Eds. (1996).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Political Opportunities, Mobilizing Structures, and Cultural Framings*. Cambridge.
- Melucci, Alberto (1980). The New Social Movements: A Theoretical Approach. *Social Science Information*, 19, 199-226.
- Molyneux, Maxine (1985). Mobilization without Women's Emancipation? Women's Interest, the State, and Revolution in Nicaragua. *Feminist Studies* 11(2), 227-54.
- Noonan, Rita K. (1997). *Women Against the State: Political Opportunities and Collective Action Frames in Chile's Transition to Democracy, in McAdam, Doug and David A. Snow. Social Movements: Readings on Their Emergence, Mobilization, and Dynamics*. University of Arizona. Roxbury Publishing Company.
- Polleta, Francesca and James M. Jasper (2001). Collective Indentity and Social Movement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 283-305.
- Saldivar-Hull, Jose (1991). Feminism on the Border: From Gender Politics to Geopolitics. In Hector Calderon and Jose Saldivar eds., *Border Feminism*. Duke University Press.
- Snow, David A., and Robert D. Benford (1988). Ideology, Frame Resonance, and Participant Mobilization. *International Social Movement Research* 1: 197-217.
- Tarrow, Sidey (1983). Struggling to Reform: Social Movements and Policy Change during Cycles of Protest. *Western Societies Program Occasional Paper No.15*. New York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Cornell University, Ithaca, N.Y.
- Ugris, Tijen (2000). Gender, Ethnicity and 'the Community': Locations with Multiple Identities. In Ali, Suki, Kelly Coate and Wangui wa Goro, *Global Femiinst Politics: Identities in a Changing World*. Routledge.
- West, Guida and Rhoda Lois Blumberg (1990). *Women and Social Protest*. Oxford University Press.
- Young, Kate (1993). *Planning Gender with Women*. Routledge.

# Women's Empowerment Through Politics of Everyday Life

**Kyoungee Kim**

Department of Sociology, Chung-Ang University

Analyzing the case gender budget movement performed by local women's organizations,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women's collective empowerment. In doing so, the study introduces the concept of politics of everyday life as an alternative to the traditional conception of politics and takes collective identity formation and changes in gender policies as measures of empowerment. The study shows that through forming collective identity as local women who are both a social category and active policy actors, they can achieve empowerment to change the conditions of their lives. This study is an effort to fill the limitations in dominant resource mobilization and political process models focusing on the structural factors in explaining emergence, trajectories, outcomes of social movements. In addition, the study would suggest a practical implication that women's collective empowerment experienced through everyday life politics can subvert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worlds and influence the policy changes of the local governments.

*Keywords* : *politics of everyday life, empowerment, collective identity, social movement, gender budget analysis*